**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어떻게 봐야 하는가? 주요 내용 요약**

**I. 개회사**

* **한홍열(KCI 이사장)**
* 중국지역학회,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원 및 한신대 유라시아 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특별 시사진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함. 2022년에 들어오면서 오늘 주제인 우크라이나 사태뿐 아니라 한국 대선 등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 저는 우크라이나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음.
* 평소에 역사를 좋아하고 여러 매체를 많이 접해보려고 하지만, 저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 역사의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은 아님.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가 진화를 하는데 그 방향성이 다르듯이, 역사 역시 진화하는 데 그 방향성은 각기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봄. 그러한 점에서 역사를 좋아하긴 하나 “역사의 교훈을 찾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 봄. 오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 들이 내일이면 또 역사가 되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우리의 의무이기도 함.
*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일들은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같음. 응당 분노해야 하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 잣대는 거의 동일한 것이라 생각함.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잘 분석하고, 분석을 기초로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지식인들의 의무라 생각함.
* 그러한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 싶다고 생각되고, 특히 “많은 국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참여하고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림.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을 더 깊게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기관과 청취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이장원 (중국지역학회 회장)**
* 한홍열 이사장님께서 아주 깊이 있고 묵직한 말씀을 해 주셨음.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당혹과 우려를 느끼는 가운데,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음. 그래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주제로 급히 세미나를 구성했음.
*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과는 다르게 장기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음. 당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력행위를 지속했으나 사실상 이렇게까지 전면적 침공을 강행할지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러시아는 전격적으로 실행에 옮겼음. 막상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러시아의 압도적 우위로 금방 끝날 것 같았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임.
* 게다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폴란드 등의 유럽국가들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해 제재에 나서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군수품, 인도적 지원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주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꺼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그래서 이 전쟁이 유럽정세뿐 만 아니라, 국제정치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간단히 짧은 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보기 위해서 금일 중국지역학회,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원 그리고 한신대 유라시아 연구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구성했는데,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장비와 장소를 제공해주신 코리아 컨센서스 측과 한홍열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림, 또한, 개인적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ZOOM’을 통해 참여해주신 한신대 유라시아 연구소의 주장환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림.

**II. 1세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지정학적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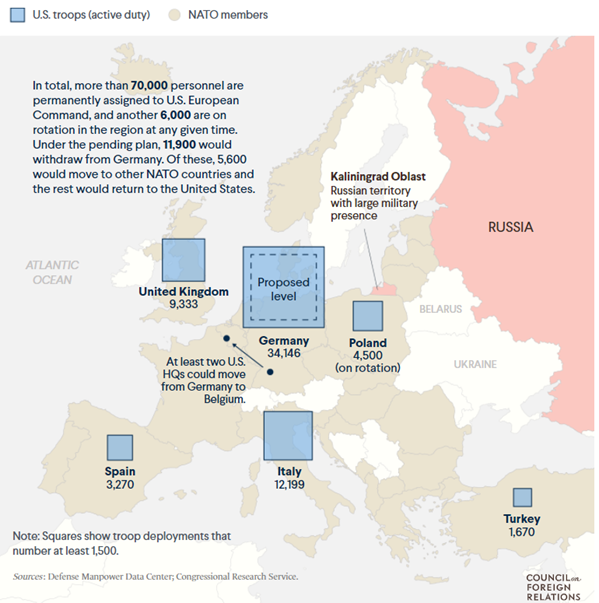
**사회: 이장원 중국지역학회장**

발표 1/러시아-우크라이나: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러시아의 상황 인식과 위기 조성 배경**
*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미국과 NATO가 일방적·지속적으로 동진·팽창하면서 자국에 대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 특히, 2008년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 대한 NATO 가입 의사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음.
* 이러한 NATO의 ‘동진·팽창’에 대해 1999년, 미국과 NATO가 합의했던 99’ 「유럽안보헌장」 등 여러 공식 문서에서 명시된 ‘안보 불가분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러시아가 인식하게 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함. 작년 7월에 발표한 푸틴의 기고문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통합성을 주제를 내용으로 했음. 또한, 금년 2월 21일 돈바스 지역(독립)을 승인하면서 연설할 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식을 드러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타자가 아닌 또 다른 자아’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문화적, 역사적, 전통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여김.
* 이러한 우크라이나에서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가 보기에)불법적인 권력찬탈 같은 쿠테타가 발생했고, 결국 완전히 친 서방세력으로 돌아서버린 것에 대해 러시아는 강한 분노를 표현함. 나와 또 다른 자아가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 푸틴이나 러시아 엘리트 집권층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임.
* 또한,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의미의 중요성을 생각해본다면, 우크라이나는 결국 러시아가 강대국의 존재를 유지해가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는 자산이자 기반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자리잡고 있었음. 2014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EU나 NATO에 가입을 하려는 것에 대해 (러시아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음.
*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이 이루어졌고, 돈바스 지역에 두 개의 공화국이 분리독립 선언을 했는데, 당시 크림반도는 병합을 했지만, 돈바스는 승인을 해주지 않았음. 그 이유를 짐작해보면, 일종의 ‘트로이 목마’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음. EU나 NATO 헌장을 보면 내전 중인 나라는 원천적으로 가입이 불가하므로 헌장을 개정하지 않는 한 가입이 어려움.
* 더욱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2015년 제 2차 민스크 평화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크라이나가 끊임없이 현상변경 시도를 하고 인식하고 있음.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평화 협정을 위반해 돈바스 지역에 대한 침공과 장악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고 인식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국에게 우호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현상변경을 위한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작용함.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작년에 있었던 카라바흐 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에게 잃었던 영토를 실질적인 전쟁을 통해 회복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 이러한 요인을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 다면,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을 통해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음.
* 또 하나 중요한 배경요인은, 러시아가 2021년 3~4월 우크라이나 위기와 6월 제네바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전략적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 것 대한 공동선언을 함.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행보가 바이든 정부의 트럼프와 다르게 ‘합리적인 존재’라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음.
* 더욱이, 2021년 7~8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을 통해 러시아는 국제 질서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축소 경향과 국제질서의 다극화 경향을 확인함.
* **러시아의 요구 사항과 추구 목표**
* 러시아의 요구사항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 가능함. 첫째, ‘안보 불가분’의 원칙에 근거해 러시아의 근본적 안보 이익 보장. 둘째,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구 소련 연방 국가들의 NATO가입 등 NATO의 추가 확장 금지. 셋째, NATO가 「러시아 · NATO기본조약」이 체결된 1997년 5월27일 이전 상황으로 군대와 무기를 재배치(철수) 할 것. 넷째, 상호 간 지상 기반 중단거리 미사일 등 공격무기 배치 금지.
* 이 네 가지 요구 사항을 기초로 했을 때, 러시아가 설정하는 구체적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첫째,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대한 무력 진압 방지. 또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저지를 통해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 위상을 유지·강화. 둘째, 소련 붕괴 이후 그 동안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유럽·대서양 안보지형의 근본적 재편. 셋째, 자국의 국가이익이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 다극질서의 이행 경향성 강화.
*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처럼 강력한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의 역량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여겼을 것임.
* **러시아의 전략과 전술**
* 러시아의 전략과 전술에 관해서 외교적 관여 시기와 군사행동을 했던 시기로 나눠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함. 외교적 관여가 추구되었던 단계에서는 ‘비예측성 극대화’ 전략을 구사했음. 즉,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같은 거대 행위자들을 상대로 무언가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상대를 협상과 타협의 장으로 끌어내고,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 스스로가 ‘비예측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봄. ‘비예측성 극대화’ 전략은 그 구조상 합리적 행위자를 상대로 하되 러시아 스스로가 철저히 비합리적인 행위자로 보여야 함. 특히 상대가 사태의 전개를 결코 예측할 수 없도록 지속해서 판을 흔들어야 효과가 발생함. 그러한 전략이 군사적인 수단,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음.
* 러시아가 외교적 관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비예측성 극대화’ 전략을 구사한 것에는 다음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 러시아는 상대가 전쟁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확신한 것으로 판단함.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러·우 간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자국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음.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먼저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러시아의 도발에 정면 대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음.
*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NATO와 대화를 통한 타협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판단되자 준비된 두 번째 ‘과감한 실력행사’ 전략을 가동함. 미국은 러시아의 안보 협약안의 핵심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지엽적 사항에 대한 협의와 개선을 제안함.
* 미국은 이례적으로 2022년 2월16일을 특정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해당 정보를 동맹국 및 우방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유통함. 또한, 미국은 위기 초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할 시 전례 없는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위기 고조 국면에서 EU와 주요 동맹국과 함께 세부적 對러 제재 조치를 공개함.
* 이처럼 미국과 NATO가 양보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의 침공 날짜를 공식화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자, 러시아는 외교적 관여를 통해 우크라이나 달성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과감한 실력행사’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설정한 목표 달성 추구를 시도함. 이 같은 결정에는 이른바 3無(無理, 無道, 無益)의 결정이라 볼 수 있음. 특히, 초장기 집권에서 비롯한 푸틴의 과도한 ‘자기확신’과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에 대한 신화적·종교적 신념이 크게 작용
* 현 위기의 향방을 결정할 몇 가지 변수들
* 현 위기 상황을 결정할 변수들은 상당히 많지만, 향후 사태 전개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우선 다음 네 가지를 상정할 수 있음.
* 첫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역적 점령 범위 설정.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역을 최대목표로, 드네프르강 동안 지역을 차대목표로, ‘노보로시야’ 지역을 차소 목표로, 돈바스 지역을 최소 목표로 네 지역이 지역적 범주로서 유용. 그러나 러시아가 최후의 수단인 군사행동을 선택한 이상 지역적 범주 면에서 최대목표를 추구하되 전황에 따라 여의치 않을 시 목표를 ‘하향식’으로 조정해갈 가능성 다대함. 다만, 전략적 가치와 점령 편의성을 중심으로 실제 군사작전에서는 장악 지역을 ‘상향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됨.
* 둘째, 우크라이나의 저항 역량의 수준과 발현 정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러시아의 점령 지역 범위와 전쟁의 속결 또는 교착에 영향을 미칠 것임. 재래식 군비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력은 러시아에 비해 객관적으로 훨씬 미흡하며 독자적 힘만으로 침공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미국도 모두 오판을 했음.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한 구심력이 발현되고 있는 등 우크라이나의 저항 의지와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다만, 미국과 서방의 군사무기 지원을 바탕으로 스탈린그라드 전투나 이라크 모술 전투의 사례처럼 시가전을 통해 전황을 교착시킬 가능성은 존재함.
* 셋째, 러시아 내 여론 동향. 현재 러시아 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는 언론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대체로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을 지지하고, 현 사태의 책임이 미국과 NATO에 있다고 보며, 푸틴의 돈바스 승인에 적극 호응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ВЦИОМ의 3.5 발표)에 따르면, 특별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는 71%(반대 21%), 이에 대한 성공 판단이 70%(실패는 14%)로 나옴. 하지만 전쟁이 단기간 내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도 상당한 인적·물적 손실이 불가피하고, 주민들의 현 체제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부정적 여론이 대두할 가능성도 존재함. -또한 미국과 서방 세력이 예고한 전례 없는 고강도 경제 제재가 러시아 경제와 주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현재의 여론에 변화 초래 가능함. 이것이 오히려 현 상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음.
* 넷째, 러시아가 점령 지역을 직접 병합할 것인지 친러 정부를 수립할 것인지의 여부. 제가 볼 때, 직접 점령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스러울 수 있음. 특정 조건, 특정 시점에 러시아-우크라이나, 러시아-미국, 러시아-NATO 간 대화와 타협이 추진될 가능성도 존재함. 먼저, 우크라이나의 민스크 평화협정 엄정 준수와 NATO 가입 철회와 중립화 등을 매개로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제안할 경우를 들 수 있음. 또한,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후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NATO에 또는 UN과 OSCE 차원에서 대화를 제안할 경우를 들 수 있음. 전쟁이 교착 상태에 처하고 양측의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프랑스, 독일, 또는 중립국 등이 중재를 추진할 경우 대화와 타협이 시도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성공 여부와 내용은 각각의 상황에서 조성된 정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함.

발표 2/미국: 정구연(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강대국 정치 속 자제(restraint)**
* 미국 역시 당혹스러운 상황임. 미국이 전쟁을 종료하고 본토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에 대해서 급하게 철군을 했다고 상당한 비난과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쟁에 준하는 참전을 하고 싶지 않았음.
* 더군다나 바이든 정부는 초기부터 코로나 상황을 안고 집권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큰 정책적 우선 순위라 보면 될 것임. 그리고 대외정책 차원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빨리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낸 것처럼,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김.
*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더 좋아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미국은 정말 인도태평양에 집중을 하고 싶었음.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동맹국들과의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미래전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만한 여유가 없었음. 그러한 군사적인 것뿐 만 아니라 이 지역 내에서의 공급망 재조명이나 이코노믹 아키텍쳐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 순위였음. 그것을 통해,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미국의 경제적 기반을 재조정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였음. 그러한 점에 있어서 군사적으로는 자제라는 입장이 제일 컸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난 것임.
* 우크라이나에 다시 앵글을 맞춰 보자면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상당히 현실주의적임. 오바마의 경우,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해 2014년에도 많은 지원을 했음.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자체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정부였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비 NATO 회원국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음. 이 견해는 트럼프와 바이든 역시 마찬가지임. 러시아와의 전면전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임.
*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기 이익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젤렌스키와의 통화 녹음이 폭로가 되면서 트럼프가 오바마와 달리 어떻게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가져갔느냐 하는 부분이 알려졌음.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요구했던 것은, 당시 대선 주자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부정부패 (폭로)와 관련해우크라이나가 도와준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폭로되었던 것임. 트럼프가 차기 대선 후보 바이든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트럼프의 자기이익적 모습에 우크라이나가 실망하게 됨.
* 현시점에서 보면 미국은 상당히 현실적인 입장을 우크라이나에게 보였으나, 탈냉전 이후 미국의 행정부들은 러시아를 ‘enemy’, 즉 중국을 대하는 것처럼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음. 힐러리 국무장관 시절부터,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을 하려고 했었음. 다만 관계회복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국내적인 여론 악화 즉, 러시아가 사이버 전쟁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여론 때문임. 이것은 미국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이 있었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까지 왔음.
* 202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러시아를 “threat(위협)”으로 명시했지만, 이것을 과연 중국이나 냉전시대 소련과 같은 ‘enemy’ 라고 보기 보다는, 방금 전 정박사님의 말씀처럼 세력균형이 다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균형에 의해서 미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굳이 NATO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미국에게는 가장 큰 쟁점임. 우크라이나를 지원은 하지만 미국의 세력권 안에 러시아와 갈등을 갖고 있는 국가들을 받아들여서 동맹국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임. 특히, 우크라이나뿐 만 아니라 몰도바, 조지아 같은 국가들도 EU 가입을 하겠다고 하지만 EU 자체에서도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음.
* 얼마 전 뉴스에서도 네덜란드 같은 국가는, 상황은 알겠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함. EU가 이러한 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없고, 다른 국가들처럼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가입을 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음.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EU나 NATO 가입이 쉽지 않아 보이고, 유럽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나 군사적 개입은 선택지 밖에 있는 대안이라 여기고 있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실상 확전도 되지 않고 제재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전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음.
* 아래 그림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 유럽지역 주둔 미군을 재배치 한적이 있는데 대부분 러시아 근접지역으로 했음. 당시 독일에 주둔했던 미군을 폴란드로 배치 및 확대하며 당시 우크라이나의 불안정성을 제어하려는 노력을 보여왔음.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군사개입을 자제했던 것이 미국이 할 수 있었던 최대의 군사적 조치라 할 수 있음.



* 또한, 미국의 경우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를 갈등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략적인 안정성 즉 ‘전략무기감축협정 연장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중국에 대한 핵군축 참여 요청을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협정을 일단 마무리 짓고 체결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관계를 군사적인 갈등으로 가져갈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그렇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방금 장세호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듯이, 결국 협상을 통해 당사국들이 해결하는 것임.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미국은 평화협정을 주선하고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보임.
* 그 외에 국가들, 특히 몰도바나 조지아와 같이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을 다시 맞이하지 않도록 확전 방지 및 지원을 해주는 것 까지가 미국이 할 수 있는 상황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여기까지 임.
* 제재효과와 관련해서 당장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금융제재 (SWIFT 퇴출)이었지만, 에너지 분야 금수조치 같은 경우 사실상 미국이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를 중국이 가장 주시하고 있다고 여김. 왜냐하면 과거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의 사례를 보자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수익성을 바꿔준 적이 있음. 그러면서 이란제재를 끌고 가고 싶었을 만큼 미국이 노력을 들였었는데 지금도 에너지 분야 금수조치 같은 것이 미국 측으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됨.
*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원유가격은 상당히 올라갈 것임. 이미 미국 내에서의 가스 가격은 3 배 이상 뛰며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에게 상당한 악재임. 그러한 점에서 이것이 장기화되면 미국이 이러한 결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임. 이것은 미국뿐 만 아니라 그것에서 피해를 받는 유럽의 동맹국들도 마찬가지임. 미국 내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당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높은 가스 요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벌써부터 의회에서 나오고 있음.
*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느냐가 관심 사항 중 하나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NATO 동맹국들이 점점 인도태평양에 진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대 중국 제재 뿐 아니라 러시아가 같이 협력하는 것에 대한 집단적인 견제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그러한 부분들을 미국이 독려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 제고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를 몇 번 했으나, 그러한 것들이 과연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러시아를 지금과 같이 embolden 할 수 있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중국이 주변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자세로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존재함.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 놓으려는 것이 미국 내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음.
* 강대국 경쟁의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해오던 국가였기 때문에 대단히 큰 전략적 변화는 없을 것임.
* **동북아로의 함의**
* 북한과 중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사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관찰하고 있음. 중국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위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단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수준까지 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에너지 금수조치나 글로벌 공급망 등 제재의 여파에 대한 내구력이 있는지에 대해 관찰할 것임. 이것은 대만 케이스와도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미국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있음.
* 북한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에 큰 관심이 없음. 북한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면서 세 국가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여김. 단지, 중국과 러시아는 비전략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고,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임. 이 세 국가가 한미일 수준으로 협력하는 상황은 아님.
*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음. 미국이 현재 러시아로 시선을 돌려서 중국이 대만을 향해 현상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짐.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한다면 미국이 다시 시선을 동북아 쪽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중국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최악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현재 미국은 동북아에서 두 국가, 유럽 전구에서 한 국가 이렇게 세 개의 전선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이것을 잘 핸들링 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외정책을 쓴 적이 거의 없는 데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바이든 정부에게서 관찰해야 할 것임.

발표 3/유럽연합(EU): 윤성욱(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EU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의 의미**
* EU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를 분석해보면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가 강대국 사이에 끼여서 생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임. 러시아의 침공은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상당히 좌절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고 이 사태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됨.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외교정책을 통해 자국의 생존방안을 대비했어야 하는데,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 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함.
* 또 하나는, 현재 EU의 앞마당에 전쟁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EU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이것이 EU가 또 한번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교훈임.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 대륙에 영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유럽통합에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될 가능성 있음. 1991년 소련 붕괴 후, 유고슬라비아 내전, 코소보 사태, 그리고 가장 최근의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이르기까지 EU 문 앞에서 일어나는 안보 위협에 EU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이러한 안보 위기를 계기로 EU의 외교·안보·방위 분야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임. 유럽대륙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통합을 시작했으나 결국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하며, 이것마저도 자칫하면 도전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유럽 특히 EU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음.
* 왜냐하면 EU가 위기를 맞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합이 되었던 경우가 상당이 많음.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최근 코로나도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었음에도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음.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EU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뀌기 시작함. 왜냐하면 EU는 국경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통제를 잘 한다고 해서 방역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EU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기존의 안보위기와는 다르게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그 이유는 EU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러시아에 대한 대응책을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EU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 러시아는 EU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함. 한국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미국으로 꼽지만 EU에게는 미국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러시아와의 간계는 미국에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국가로 꼽히고 있음. 에너지 의존도 같은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임. EU는 십 수년 전부터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내부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EU와 러시아 중간에 있기 때문에, 특히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는 상황임. 그래서 2014년 EU-우크라이나 협력 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하였고, 이후 EU는 러시아를 밀어내고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 상대로 부상함.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추기 위함이 주목적임. 결국 우크라이나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EU의 회원국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 물론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그러나, EU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이른바 happy ending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음. 우선 EU와 러시아의 경제 방정식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동함. 방금 언급한 에너지 의존(crude oil, 천연가스 등)은 EU가 러시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약점임. 또한 EU는 러시아에 있어서 최대의 교역 상대이고 현재 승인이 중단되었으나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Nord Stream 2는 에너지 안보 관련 EU의 러시아 의존을 더욱 가중함. 따라서 EU가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EU와 러시아의 관계로 인해 행복한 결말을 내기는 어려울 상황임.
* 그러나 독일의 Nord Stream 2 승인 중지 결정은 독일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결정이라 할 수 있음. 독일에게는 1970년대 이후 시행된 동방정책의 중단이라는 의미까지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임. 왜냐하면 러시아의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독일 의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 러시아의 인권 침해 문제, Navalny의 수감 등에도 지속되었던 문제 등에도 동방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음. 그래서 독일의 Nord Stream 2 승인 중지 결정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임.
* **2014년 EU는 ‘EUAM Ukraine’ 창설하고, 우크라이나의 군대에 지원계획 수립**
*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방금 정세호 박사님도 계속 배경 설명해주셨지만 이 사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부분임.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지속되어 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도 EU 주도의 군사적 지원이 부재하다는 점임.
*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왜 NATO 문제가 불거지는가 하면, EU가 경제적으로 또는 시민사회 지원, 우크라이나의 법치주의 및 부패 척결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이 군사적 지원임.
* 결국 EU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시 NATO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즉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맞서기 위해 군사적인 부분은 NATO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NATO 가입 의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될 수 밖에 없음.
* **EU가 추구하는 ‘유럽 질서와 러시아 대외 정책의 핵심 동기**
* 이것 역시 정세호 박사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NATO 가입 문제임. 그러나 저는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계기로 EU가 추구하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의 유럽 질서가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 싼 어떠한 강경한 정책의 근본적인 것과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함.
* 즉, EU는 국가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권적 평등과 무력 사용의 반대라는 원칙을 유럽 질서로 규정함. 이것이 2차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의 영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루려고 하는 EU의 근본적인 가치임.
*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 원인은 러시아의 영향력임. 특히, 러시아 국경 밖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인정과 유럽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를 강조하는 것임.
*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일종의 강력한 러시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EU가 추구하는 유럽질서와 부딪히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EU의 고민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로 인한 안보 불안을 포함한 유럽의 안보와 방위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그러나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사실상 국가들 간 외교안보 분야의 통합 논의가 일종의 ‘터부(taboo)’로 여겨지고 있었음.
* 왜냐하면 시도를 해 봤자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외교안보에서의 통합은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것을 또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국면을 만들어줬음. 결국 회원국 별 러시아에 대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외교안보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음.
* **회원국간 외교안보 통합을 위한 결단이 이 사태를 계기로 EU가 직면한 관제**
* 당연히 EU차원에서의 군사적인 통합, 안보 방위 분야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가도 많이 있음.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동유럽 국가나 발트해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핵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EU끼리 단합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욱 불안하다고 반대하는 입장임.
* 특히 프랑스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는 올해 4월 대선이 있는 데 이것이 핵심 변수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랑스가 의장국 의장을 맡고 있음. 따라서 EU를 대표해서 푸틴을 만나지만,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EU가 러시아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을 상당히 언급해왔음. 특히 대통령은 유럽 의회 연설에서 EU가 긴장 완화를 위한 러시아와 독자적인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래서 마크롱은 지난 해 12월 의장국(2022.01-06) 수행 관련 기자회견에서 EU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마크롱은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강하고 완전하게 독립적이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자유롭고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Europe powerful in the world, completely sovereign, free in its choices and the master of its destiny)”고 주장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음. 여러 야심찬 정책 중 하나로 유럽 공동 방위 정책을 개혁해서 통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방금 정구연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특히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은 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임. 따라서 마크롱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이 맞춰진 현 상황이 유럽과 러시아가 대륙의 안보 체계(security architecture)를 논의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음. 사실상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적, 방위적 결합을 분리시켜 궁극적으로 NATO를 분할하는 것이 장기적 목표이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함
* 그러나 이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EU 회원국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외교 안보 분야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만장일치로 가야 하는 부분임.
* EU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들 간의 이견은 러시아가 EU의 지정학적 힘과 영향력을 경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그래서 러시아가 2021년 국가안보전략에서 EU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대외정책에서 러시아가 EU를 중요한 행위자로 고려치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함.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2022년 1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음.
*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보았을 때, EU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안보 방위 이슈에 대한 분열은 유럽의 안정 또는 불안정이 바이든과 부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상황은 흡사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의 미래를 결정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이러한 점에서 보면 분명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는 또 다시 안보 방위 분야 통합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할 것임. 문제는 각기 다른 회원국들이 어떻게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임.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가능한 시간대가 마크롱이 주장하는 시간인데, 사실 마크롱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올해 6월 말까지 밖에 없음. 그러나 독일이 이것에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임.
* **EU가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
*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는 동부 유럽 국가들 - 특히 몰도바, 조지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아르메니아와 벨라루스 등 - 에 대한 회원국 가입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가 고민임. 금일(3월 11일) 아침 EU정상들이 패스트 트랙은 안 된다고 결론을 냈는데, 결국은 각자 이견이 있는 것임. 왜냐하면 새로운 회원국 가입은 100% 만장일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나온 것임.
* EU가 러시아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의존 문제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쉽지 않은 부분이므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음. 문제는 메르켈 총리부터 있던 탈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재고 가능성 대두됨. 그러나 독일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 그렇게 되면 독일 내부적인 혼란도 어느 정도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EU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관한 문제임. EU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찬사와 비판이 공존하는 상황임. 그 비난의 근거는 과거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을 둘러싼 회원국간 갈등 표출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논란 등이 있음. 이것을 고려할 때, 유럽이 인종, 종교, 출생지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Global player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극복해야 되는 문제임.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은 EU의 관대함, 인도주의적 가치, 그리고 전 지구적 난민 보호 레짐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는 기회임.

발표 4/중국/대만: 장영희(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 **중국은 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 지지할 수 없나?**
* 결론부터 말하자면 푸틴의 출병은 바이든 뿐만 아니라 시진핑에게도 곤란한 사건임. 물론 전쟁 초기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이 장기화 되면서 미국의 시선이 중국에게 향하지 않고 러시아에 향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음. 미국이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을 놔두고 다른 곳에서 힘을 빼지 않겠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음. 그래서 중국사회의 여론은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음. 반미정서에 기반해서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국가라고 하면 지지하고 있는 것임. 물론 중국사회에 반대론자들이 있기는 하나 중국의 여론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대중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임. 중국 사회의 여론은 그렇지만 중국정부의 입장은 반대로 매우 유보적인 입장임. 그리고 그 유보적인 입장이 조금씩 우크라이나를 의식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안보, 식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역국이며, 중국이 매우 중시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전략적 파트너임. 따라서 침공 당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연합 외에 전쟁을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는 중국임.
*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구조 하에서 중국은 모스크바의 정치적 지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식량 및 에너지 수입, 우크라이나와의 일대일로 협력,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 진출, EU의 미국 경도를 피하고 미중 관계의 관리와 안정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을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 등 4자 간 복잡하고 난해한 게임에 빠뜨리고 있음.
* **중국은 왜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나?**
*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중국의 공식적 입장 표명은 두 차례 있었음. 왕이 외교부장이 2022년 1월 27일 블링컨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안보 우려는 합리적인 것이므로 그 우려가 중시되어야 하고 해결돼야 함. 지역안보는 나토와 같은 군사집단을 강화함으로써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했음. 두 번째는 시진핑과 푸틴이 지난 2월 4일 공동 발표한 <중러공동성명>에서 색깔혁명 반대와 나토 확장 반대를 언급함. 그러나 주목할만한 것은 <중러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임. 이것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간의 컨센서스가 강하지 않음을 드러낸 것임.
* **중국은 왜 우크라이나를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하나?**
*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음. 우선 중국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경제 안보에 대한 고려 속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경제관계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식량과 에너지 수입의 대체 공급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음. 식량과 에너지에 있어서 미국과 호주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존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러시아를 지지함으로써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임.
* 그래서 중국은 1992년에 우크라이나와 수교를 맺었고 2011년에는 우크라이나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음.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라 불리며 세계 8위의 농업생산국이자 세계 5위의 농산물 수출국임. 그래서 중국이 식량 수입을 다변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인 협력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 사실 오늘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사인 ‘양회’가 종료가 되었는데 중국은 인구가 많이 때문에 식량위기 및 식량안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나라임.
* 그래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미국과 호주에 식량 및 에너지 수입을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꼽힘. 수년간 양국 간 교역 확대가 가속화됨. 중국이 수입하는 옥수수는 원래 전량 미국에서 수입하다가 2019년부터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제치고 전체 수입량의 80%가 넘는 최대 공급원이 됨. 중국과 호주 관계가 악화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호주를 대신해 중국의 주요한 밀과 석탄 수입원이 됨.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석탄은 2021년 중국 전체 석탄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함.
*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구매자이자 투자자**
* 2020년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2위 식량 수출 시장이 되었고, 폴란드와 러시아를 제치고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되었음. 지난 2021년 6월 중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협력위원회 농업협력 분과위원회가 열렸을 때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 겸 무역대표인 타라스 카치카(Taras Kachka)는 “중국은 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묘사.
* 무역 외에, EU와 FTA를 체결한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중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임.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구축에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시진핑의 전략을 흐트러트린 푸틴**
* 중국과 우크라이나 모두 양국 관계를 심화시킬 필요성에 공감해 왔고 양국 관계는 계속 강화됨.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제2차 우크라이나 위기는 중국의 전략을 흐트러트림. 중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연합, 미국 등 다자간 게임 속으로 몰아넣음. 그래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모스크바와 같은 입장에 설 경우 우크라이나의 반감을 사게 되고, 중국과 유럽 간의 관계를 해쳐,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더욱 미국의 품에 안기게 만들 수 있음.
* 그리고 중국 스스로 “각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한다”는 오랜 외교원칙에도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을 잃게 됨. 이 때문에 베이징은 지금까지 크림 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2014년 친 러시아 무장세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수립한 두 정권을 승인하지 않았음.
* 이것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두 번째 이유임. 중국이 나토 확장에 반대하는 모스크바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러시아와 나토의 충돌에 연루되는 데는 관심이 없음. 러시아의 정책 결정자들도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친미노선에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미, 친유럽 노선을 견지하면서 그 관계는 일정 정도 제한을 받게 되었음. 대표적인 예가 베이징 텐자오항공이 우크라이나의 항공엔진 제조업체인 모터 시치(Motor Sich)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무산되었고 작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모터 시치를 국유화하면서 마무리됨.
* 중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획득한 군사장비나 기술로 미국에 대항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싸우려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함.
* 우크라이나에게 중국은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힘의 균형이란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중국과의 관계에 선을 긋게 되었음. 중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자 인프라 건설의 자금줄 이지만 정치적으로 관계는 제한적임.
*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등거리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지난 2월 초의 <중러공동성명>은 치열해지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 중국이 모스크바와 더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중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다시 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의 중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위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던, 미중 간 경쟁이 약화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계속 미국과 유럽 편에 선다면 중러가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는 국면은 고착화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 제한을 받게 될 것임.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과 등거리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임.
* **대만의 상황**
* 이번 전쟁에 대해서 대만의 시각은 사실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음. 민진당의 입장과 국민당의 입장이 서로 다름. 민진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대만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국민당에서는 이번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므로 중국과 발 빠르게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에서 보도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지역 1순위는 대만이었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장세호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오히려 대만이 단층선으로서 더 충돌 위기가 더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을 했고, 대만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있음.

**III. 라운드테이블**

사회: 박정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신북방경제실장)

* 먼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각국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먼저 듣고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음. 장세호 박사님부터 각국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지 순서대로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람.

토론 1: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푸틴 입장에서 본다면 탈 냉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이익에 도움이 안되었다고 여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겼고, 특히 유럽 대서양 지역에서 자국의 안보이익이 끊임없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러시아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지향하는 국제질서, 다극질서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하나 또는 두 개의 국가가 만들어가는 질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다극질서를 끊임없이 추구해왔음. 그래서 푸틴 정부가 지정학적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대외정책을 줄곧 추진해왔는데 어떠한 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질서, 즉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자신들이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국제질서와 충돌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자신의 전략적 기반을 수호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 강화시켜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는 측면임.

토론 2: 정구연(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미국이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은 미국이 지금의 모든 국제질서의 세력균형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제 와서 러시아가 유럽전구로의 세력 시선 분산을 이끄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음. 왜냐하면 에너지 제제 조치 등을 위해 미국 스스로도 상당한 내상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 미국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음. 예컨대 원유 수급선을 다시 재조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제했던 국가들에게 다시 원유를 재생산하라는 요청까지 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임. 인권을 이유로 제재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너희, 석유생산을 해서 우리에게 조금 줘” 라는 상황임.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원칙을 무너뜨리게 하는 상황에 대해 당황스러워 하고 있음.

토론 3: 윤성욱(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큰 틀에서 보면 정세호 박사님 말씀과 연관이 있는 데, 다극질서를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EU와도 맞닿아 있다라는 측면이 있음. 러시아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러시아를 인정해 달라는 것임. 내(러시아)가 원하지 않으면 나는 NO 할 수 있고 주변의 다른 국가들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임. 장세호 박사님과 정구연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연결시켜보면 핵심은 (러시아의 입장에선) 미국과 유럽이 가지고 있는 이 대서양 동맹을 어느 정도까지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임. 이것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음.

토론 4 장영희(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 대만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부연 설명 하겠음. 그 동안 세계적으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손꼽혔던 곳이 사실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한반도였음. 이 지역들은 모두 미중 전략경쟁과 연결이 되는 곳이었음. 따라서 이 지역들은 결국 미국의 패권유지와 직결되는 곳이고 미국에게 있어서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음. 그러나 의외로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임.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인 군사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25%가 지지를 한다고 하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 국민들은 45%-50% 정도 지지하고 있음. 결국 그만큼 미국정부나 미국사회 여론에 있어서 대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에서 차이가 발생함.

토론 5: 이장원(중국지역학회장)

* 중국의 입장 관련해서 장영희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셨고,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 드리겠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행위는 국제질서를 향한 현상변경을 위한 시도가 본질이라고 생각됨. 중국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관찰하지 않을까 생각함. 특히, 방금 전 대만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대만 문제를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함. 그래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지원 을 할 것인가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만과 중국 대륙과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판단하는 하나의 베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함. 방금 대만 내부의 상황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 중국의 언론 매체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대만의 시각을 소개했음. 3월 7일자 중국의 복건일보에서 전 대만대학교 교수이자 국민당 정치인인 장야중의 의견을 소개 했음. 일단 복건일보에 올라와 있는 기사 내용만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대만에 대해서도 비슷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함. 이러한 기사를 왜 소개 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임. 중국이 내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닐까 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함.

토론 6: 주장환(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장)

* 몇몇 분들의 의견이 대체로 수렴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을 아주 정제되지 않은 언어나 개념으로 언론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소위 ‘신냉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압축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됨. ‘신냉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념화가 정확히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개념화는 이후에 진행한다 할 지라도 흔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국이 그려내고 있는 자유주의 동맹이라든지 가치동맹이라든지, 미중 패권경쟁을 염두해두고 줄세우기 같은 시도를 통칭해서 만약에 신냉전이라는 라벨을 붙인다면 논의가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됨. 그러한 면에서 보면 몇몇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탈냉전 질서에서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 현상 유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기에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음. 그렇게 보면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은 어떠한 질서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 저는 하나의 프로젝트 개념으로 ‘신냉전’이라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존재한다고 봄. 어떠한 가상의 적 상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그룹핑을 하고 그들과의 대항전선을 그어내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뿐만 아니라 패권 유지까지 추구하는 질서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됨.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실제의 적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러한 트랩들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고 동아시아에서는 대만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면에 있어서 러시아가 자국의 의도도 있겠지만 미국이 던져놓은 부분을 밟았다고 평가하고 싶음. 방금 장영희 박사님도 그러한 표현을 쓰셨지만 그래서 저는 중국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고 이 사태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대단히 긴밀한 관계, 즉 러중동맹 같은 형태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다르게 보이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됨.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신냉전을 만들어 나가는 구도에 대해서 전 세계 또는 EU를 비롯한 주요국가들이 신냉전이라는 수를 놓았을 때 어떠한 것이 자국에 유리한지 판단하고 그 노림수를 계산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됨. 또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미국이 의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냉전의 질서뿐만 아니라 탈 냉전 이후 소위 ‘뛰어넘는’, 탈 냉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그려볼 수 있고 중국은 이 구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상상력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IIII. 추가질문 및 코멘트**

사회: 박정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 들어온 질문 및 코멘트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음. 첫 번째, 장세호 박사님께 “전선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러시아의 오판이 아니라, 전면적인 공습 보다는 일정한 군사적 우세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부의 결심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봄. 향후 3-6개월까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예상되는 국제관계의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두 번째, “유럽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하에서는 불가능함. 최근 마크롱, 숄츠도 유사한 발언을 했지만, 유럽의 안보문제와 관련 러시아와 일정한 협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안보협력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임”이라고 코멘트와 함께 윤성욱 교수님께 “<신유로 안보레짐>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또한, 윤성욱 교수께 “유럽연합의 독자적 안보체는 의지는 있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짐. 독일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나토를 더 중시할 것이며, 유럽 내 약소국 역시 독일, 프랑스 중심의 안보체에 경기를 일으킬 것으로 보임. 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 내 최대 군사대국인 영국변수를 고려할 때 유럽연합 안보체는 옵션제로로 보임. 마지막으로 유럽이 미국 나토의 핵우산 아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적어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한 유럽연합의 안보적 결정은 미국 결정의 바운더리 안에 걸쳐질 것으로 판단한다”는 코멘트가 있었음.
* 이것과 관련해 저도 다른 분들께 유사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음. 그리고 사회자인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분명이 있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것인데, 하나는 중국이라는 뒷배, 또 하나는 유럽연합과의 공고함과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 체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가 러시아의 과감한 결정이 생기게 된 주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함. 어쨌든 지금 미국, 서방과의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서 경제제재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파급효과가 당연히 서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코로나 19 이후 경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수 밖에 없는 국제 유가라든지 광물자원 등이 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반에 파격을 가할 수 있는 치킨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가 중요할 것 같음. 미국이 끝까지 갈 것인가, 러시아가 끝까지 버틸 것인가 이러한 것도 프랑스 대선 이후에 의견이 갈릴 수도 있어서 그러한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그렇다면 향후 이 사건의 전개 방향과 전망을 각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외교적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조금 들어보고 싶음. 먼저 장세호 박사님과 윤성욱 교수님께서 질문 받으신 내용의 답변 이후에 각국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겠음.

질문 답변 1: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선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러시아의 오판이 아니라, 전면적인 공습 보다는 일정한 군사적 우세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부의 결심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함. 다만 제가 보는 입장은, 조지아 사태나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도 러시아가 공포를 조성해서 전쟁을 했음. 이렇게 하면 금방 상황이 정리가 되었음. 제가 생각하는 러시아의 오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이나 역량에 대한 오판이 있었다고 생각함. 전쟁선언을 하고 군대를 몰고 들어가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혼란과 내분에 빠지면서 지도부가 외국으로 망명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으면 굉장히 달라졌을 수도 있었음. 그러한 부분에 오판이 있었다고 생각함. 그리고 전황 자체는 대체적으로 전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러시아의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중국과 유럽의 에너지 체인 문제라는 두 가지 요소에 적극적으로 동의함. 지금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고 있는 전방위 주도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있어 굉장한 타격임. 그러나 이 제재는 러시아뿐 아니라 서로 아프게 되어 있음. 그리고 누가 더 타격이 있느냐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 또한 누가 더 이것을 견딜 수 있는가가 중요함. 한가지 예를 들자면 2차 세계 대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소련인데 당시 승전국이었고, 전후 질서를 만들어 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이번 사태 역시 객관적으로 우리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프로파간다들이 서로 양쪽에서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러한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저는 전쟁의 가능성은 약하게 봤지만 이 사태는 결국 핵 강대국끼리 벌이는 사태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어느 순간이 되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질문 답변 2: 윤성욱(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코멘트와 질문에 대해 저도 동의하는 바임. 먼저, 유럽연합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음. 결국은 제재 정도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국가들간의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보니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렇다면 유럽의 새로운 안보레짐을 언급하기에는 쉽지 않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기도 무척 어렵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EU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금과 같이 제재 일변도로 가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임. 설령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러시아와의 관계는 다시 좋은 관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봄. 결국은 EU가 미중경쟁 시대에 중국도 라이벌이지만 필요할 시에는 같이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봄. 단, 러시아의 침공 사태를 놓고 보았을 때, 저는 EU가 원칙과 가치는 무조건 지켜나가지만 무작정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국가들을 배제한다고 보지 않음. 결국 앞으로 러시아가 추구할 다극질서나 EU가 원하는 다극질서를 추구한다는 말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떠한 식으로도 다시금 좋은 관계로 나가길 원한다고 보고 있음.

질문 답변 3: 정구연(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를 주도할 가능성은 없고,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음.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 역시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음. 그럼 점에 있어 외교적인 타결 가능성은 분명히 있음. 장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것은 미국이나 NATO 동맹국들이 나서서 협상을 해야 하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주둔재배치나 전략 무기 재배치에 대해 협상이 이뤄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됨. 그렇다면 결국 미국이 나서야 하는데 지금 아직 미국이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을 것 같음.

질문 답변 4: 장영희(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 외교적 타결 부분에서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으로는 중국이 타협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의 속내는 정구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제재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메랑 효과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중국보다는 미국에게 더 부담이 될 것임. 그리고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과정에서 중국에게 기댈 수 밖에 없음. 일대일로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중국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임. 제가 중국을 조금 더 대담하게 상상한다면 중국은 이 상태가 장기화 되는 것을 오히려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함.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떠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질문 답변 5: 이장원(중국지역학회장)

* 장영희 박사님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현재 중국이 처해있는 상황이 갈수록 조금 더 복잡해지고 미묘해지며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상황임.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현재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러시아와는 1950년 대 초반을 제외하면 1950년 이래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고라 할 수 있음. 특히 작년의 경우, 20년 동안 유지해오던 우호협력조약을 푸틴과 시진핑이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또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음. (우크라이나 사태) 초반에 보면 이른바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우려에 대해 중국이 조금 손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음. 그런데 지금 보면 주권존중, 영토 불가침 원칙 등을 강조하고 하고 있음. 최근의 양회(兩會) 기간에 중국외교부장 왕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치 거의 중국외교백서의 구성처럼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의 주요 입장을 피력했음. 거기서 우선 두드러져 보였던 것이 ‘주권 존중, 영토 불가침’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다자해결을 주장했던 것임. 중국이 처해있는 미국과의 관계, 유럽과의 관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보면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임. 그렇다고 나서서 중재 역할을 발휘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갈수록 모호한 표현과 스탠스를 취하고 있음. 내심 이 사태가 회담을 통해 속히 평화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중국의 속내일 것 같음.

질문 답변 6: 주장환(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장

* 저는 외교전문가가 아니지만 중국 입장에 빙의가 되어서 보면, 중국으로서는 매우 두려운 것이 미국이 걸고 있는 신냉전 드라이브임. 이것에 대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라는 트랩을 밟은 것에 대해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봄. 그러나 이왕 밟은 트랩이면 깨고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뇌피셜’이지만 유럽지역에 있는 미국의 신냉전 질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동아시아에서의 ‘대만 트랩’을 중국이 밟았을 때 어떻게 또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음. 그래서 그 해결과정으로 첫 번째는 미국에게 이러한 식의 신냉전적인 드라이브는 통하지 않는 구나라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임.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이른바 미국뿐 만이 아니라 EU나 ASEAN과 같은 다른 국가 또는 세력들, 아니면 다른 선진국가들이 조금 더 다자적인 형태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라면 중국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됨. 물론 중국은 당사국이 아니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중재를 하겠다고 나설 수 없지만 EU국가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러시아와 안보문제 등에 대해서 통 크게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지지하는 정도의 입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봄.

사회: 박정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 세 번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음. 미국 입장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뭔가 하면 미국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러시아 침공일자를 공식화 시켰음. 그것이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미국 정도의 강대국이 침공 날짜까지 알고 있는데, 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인지, 전쟁을 방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이것을 막기 보다는 다른 계산이 있어서 인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음.
* 또한, 유럽 입장에서는 슐츠 총리도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셔틀 외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설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민스크 협정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 문제가 커졌던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유럽이 왜 이렇게 안보에 치명적인 것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함.
* 중국 전문가분들에게 제가 드릴 질문은 2014년 이래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고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협력들이 실제로 있었음. 이 사태 이후 중국이 우크라이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게 될 것인 것 궁금하고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함.

질문 답변 1: 정구연(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미국 많은 첩보를 가지고 있고, 그 추측들이 대부분 다 맞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음. 우선 미국은 일단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굳이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미국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음. 미국 입장에서 확실한 정보라고 여기고 언급을 했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인텔리전스가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임.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도 공개를 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국가들이 나서기를 기대했던 것 같음. 미국은 아프간에서 철군한지 얼마 안되었고 러시아를 상대로 전면전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음.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시그널을 유럽국가들에게 준 것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이 것에 대비하라는 의미였음. 사실 미국이 왜 그래도 가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미국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를 놓고 러시아와 전쟁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임.

질문 답변 2: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때 상황으로 돌아가보자면 미국 입장에서 전쟁 정보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은 몇 가지 있었을 것임. 우선, 이렇게 경고를 함으로써 상대를 제약하겠다는 것임. 또한, 당시 유럽국가들이 고민이 많았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음. 그러나 전쟁일자를 특정함으로써 유럽내부의 결속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유럽국가들을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음. 마지막이 중요한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질극 장면이 떠올랐음. 이를테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인질로 삼고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있는 것임. 러시아가 “내 요구 사항을 들어줘”라고 라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인 미국에게 요구를 하는 것임. 러시아가 “자, 이제 10초 후면 미국에 흉기가 들어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함. 미국은 러시아에게 “만약에 네가 인질을 해한다면 이러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정도로 얘기함.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보를 하겠다고는 절대 하지 않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인질범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길 원했을 수 있는 것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 러시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미국이 직접 받아주기는 어려움. 즉, “NATO와 전쟁하기 않겠다, 무기를 1997년 이전으로 다 철수해라” 등의 이야기를 받아주기는 어려움. 그러나 오히려 인질이 “나는 NATO 가입하지 않을래, 중립화 할래” 라는 발언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강대국들이 서로 체면이 상하지 않는 과정일 수도 있음.

질문 답변 3: 윤성욱(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됨. 저 역시 제 상상력을 십분 발휘하여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EU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이 느끼는 것과 다를 것임. 왜냐하면 정말 지리적으로 바로 앞이기도 하고 자신들과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 싶기는 한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러시아에게 슐츠 총리도 마크롱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등 EU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고 제한적임. 그러나 EU가 직접 관심이 있는 것은 과거의 핵협정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역할처럼 분명히 군사적으로 자원이 풍부해서 EU차원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지원이나 군사적인 대립을 통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서 평화를 만들어 내는 중재적 역할에 아마 가장 초점을 둘 수밖에 없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EU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그 한계를 아마 이번에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마크롱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 차원에서 또는 EU차원에서, 만약 EU가 어떠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정표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지난 이란 핵협정 때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시도는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음.

질문 답변 4: 장영희(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 책임론의 시각에서 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사실 우크라이나가 국내정치적으로 보면 젤렌스키 정부에 들어서서 굉장히 친미적이고 친유럽적인 선택을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임.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날 것이라는 힌트를 주면서 서포트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책임을 가지고 있음. 또한, 미국은 무기판매에서도 실익을 보았음.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논리적으로 너무 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까 주장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 트랩과 대만 트랩이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는 동맹국도 아니고 미국에게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는 전쟁 발발의 장소임. 그러나 대만은 미국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은 곳임. 이 차이 속에서 미국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손을 놓고 있었고 대만해협에서 굉장히 긴장을 유지하였음. 또한, 오히려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쪽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략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이지 않은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음.

질문 답변 5: 이장원(중국지역학회장)

* 중국-유럽 관계와 중국-러시아 관계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속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는 중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음. 그것이 만약 현 상황에서 중국에게 하나의 방어논리라고 한다면 사실은 방어가 되지 않을 것 같음. 일종의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중국에게 매우 중요하고 러시아도 중국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 둘 중 어느 한 쪽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가에 대해, 중국으로서는 여기도 저기도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빨리 끝나는 것이 오히려 중국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됨.

질문 답변 6: 주장환(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장)

* 사회자께서 주신 질문에 딱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으나 두 가지가 조금 의아하다고 할까, 궁금하다고 할까, 혹은 이 사태에 각국의 본질을 조금 꿰뚫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봄.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 중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바라보는 것은 기존에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가졌던 관계, 그 이상의 차원이라고 생각함. 다시 말씀 드리면 우크라이나는 윤성욱 교수가 최근에 일관되게 자주 얘기하신 소위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끼인 국가의 비애를 그대로 겪고 있는 것이라 생각됨. 두 번째는, 정구연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미국은 시그널을 주고 우리는 파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달리 말해보면 “왜 너희들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느냐”, EU의 주요 구성국가들이 그래도 미국이 와야 하고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조금 에둘러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 그래서 저는 미국이 EU의 주요 구성국가들에게 보다 더 반러 혹은 친미적인 성격으로,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한다고 했으면 한번 해봐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러한 결과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음.

사회: 박정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 코멘트 하나를 소개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음.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하셨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이 러시아의 원유나 천연가스 수출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을 대체하는 수입국으로서의 일정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2020년 이후 양국간 무역 통화의 50%미만이 달러로 체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스위프트 배제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는 듯함. 그래서 미국에 대항하는 중러의 협력이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주셨음.
*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 남았는데 전반적인 얘기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종료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이 사태가 주는 국제정치, 안보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한반도에게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함. 일반적인 질문이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EU나 러시아가 이러한 사태 이후 국제정치나 군사안보에 어떠한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 또 한반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편안하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 두 개를 묶어서 드림. 이번 사태 이후 국제정치나 국제안보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각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국인으로서 한반도에 어떠한 정책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음. 이번에는 거꾸로 주장환 소장님부터 먼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음.

질문 답변 1: 주장환(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장)

* 국제정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 말씀 드리면 이번을 계기로 미국이 걸고 있는 신냉전 드라이브 질서가 보다 촉진될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들이 상당히 속도가 조금 늦어질 것인가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음. 한 가지 요인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매우 안 좋고, 즉 각국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대단히 애석한 일이지만 전쟁 내지는 폭력의 발생으로 그것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선뜻 대단히 아주 좋은 그림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음. 다만 세계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이 측면만 바라보면 완전 마이너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봄.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함. 만약에 ‘대만 트랩’을 중국이 물었을 때,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물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저는 이번에도 미국의 집요함, 미국 구도 관철의 능력 등을 바라봤을 때 대비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듬. 그것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저는 신냉전 질서라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신냉전이 아닌 트랜스냉전과 같은 형태로 가야하고 그것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다자주의가 아니라 각 지역과 국가들에서 다양한 연계와 협력이 일어나는 것이 보장되는 형태의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정부도 출범했지만 미중이 어떻게 싸우는 지를 보지 말고, 예를 들면 EU나 ASEAN처럼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과의 연계 혹은 대척점에 서 있는 국가들이 아닌 세력들과의 그룹핑 연계를 강화해가야 함. 그래야만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라도 그 효과가 한반도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전해지지 않고 그 역내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음.

질문 답변 2: 이장원(중국지역학회장)

* 방금 주장환 소장님이 신냉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태를 단순히 신냉전이란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초반에 윤성욱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유럽에서도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고,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입장과 또 다른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유럽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의 대서양 동맹, 그리고 프랑스의 독자노선이 추구하던 유럽주의 사이의 갈등이 생각남.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신냉전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음.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고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질문 답변 3: 장영희(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만해협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중국이 실감했을 것이라 생각함.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중국 국민들이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중국이 얼마나 많은 국제적인 비난, 비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제재나 변수들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한국에 입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국들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장원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한국 혼자서 노력하기 보다는 다자주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전쟁의 참상을 근거로 해서 전쟁을 방어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질문 답변 4: 윤성욱(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두 가지 질문에 관련해서, 사실 제가 대만 전문가도 아니지만, 정말 상상도 하기 싫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처럼 난처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인 국가는 거의 없을 것임. 그러므로 절대 대만에서의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음.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아마 가장 큰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됨. 만약 러시아의 요구 조건들이 많이 관철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러시아는 침공이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다극질서를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듬. 특히, 조금 더 관심 있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문제임. 주장환 교수님도 끼인 국가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전쟁은 답이 아님. 이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강대국에게 맡길 수는 없겠구나, 이것이 그들 손에 결정이 나버리는, 즉 우크라이나처럼 다른 국가들이 강대국들 손에 운명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결국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드 배치를 이야기 할 때가 아니고, 한반도 문제는 남북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고 중요하고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결국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함.

질문 답변 5: 정구연(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제질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유럽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음.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국가들의 결속력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고 동시에 트럼프가 그렇게 내라고 해도 안 내던 분담금을 내지 않을까, 예기치 않게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됨. 사실 미국의 경우는 유럽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유럽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갈 수가 없음. 지금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정도로 현상유지를 할 수밖에 없음. 중국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시작한 것에 경악을 했을 것임. 중국이나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목표로 하는 양상이 아님.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고 그것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나 볼 수 있는 전쟁의 양상임. 미중이 준비하는 전쟁은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이버, 우주까지 다 포함하는 전쟁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근대적인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에게는 상당히 라이어빌리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음. 그리고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전혀 다른 케이스임. 러시아와 척을 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굳이 NATO에 들이기도 어려움. 대만에 대해서는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각자의 협력사항에 대만문제를 넣었는데, 아마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케이스를 보일 것 같음.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준비하는 ‘인도태평양’의 틀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앞서 언급된 사드 문제임.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대해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는 전혀 다른 케이스고 동일 선상에서 볼 수는 없음.

질문 답변 6: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가 확실히 국제질서의 재편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 제가 최근에 썼던 글 중의 제목이 <미중전략경쟁을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한계>임. 그것은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에서 G2라는 양극질서, 두 개의 행위자로 그 질서를 바라봤음. 그러나 G2는 변수가 되고 다른 나머지들은 모두 상수가 취급을 하는 데,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제 3의 행위자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 것임. 제가 봤을 때 미중이라는 두 행위자 말고도 이 질서의 재편기에서 러시아든 EU든 인도든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고, 이들이 갖고 있는 구상, 의도 그리고 실세 행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런 부분들을 저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우크라이나 문제는 중립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떠한 중립화가 될 것인가 역시 관건임. 이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결국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범위에서 진영화라고 하는 것이 더욱 더 가속화될 것임. 중요한 것은 이 두 세력 간의 불신도 커지고 대결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결국은 지정학적인 단층선을 중심으로 상당히 중요한 발화점들에서 긴장과 불신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음.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더라도 발트3국이나 동유럽들에서는 긴장이 훨씬 더 증가될 수 밖에 없음. 그렇다면 유사한 긴장감이 높아질 텐데 충돌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 충돌로 가게 될 수 밖에 없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겠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첨예한 대결과 갈등은 오히려 큰 틀에서 본다면 협력안보와 같은 새로운 협력이 나올 수도 있음. 냉전이 가가 첨예했을 때 군비통제 논의가 생겨난 것처럼.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외교정책이 참 안타깝고 끼인 국가로서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에 있는 국가이지만 미국의 책임, 우크라이나 책임에 관한 얘기도 제기될 것임. 우크라이나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 우크라이나의 법(Law on Domestic and Foreign Policy) 개정에서 ‘비동맹’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EU나 NATO 가입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넣음. 지정학적 단층대에 존재하는 국가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으면서 특정한 외교적 지향점을 기본법에 명시한다는 것은 많은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반면교사를 준다고 생각함.

사회: 박정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됨. 강대국 사이에 있는 국가의 설움일 수도 있는데, 역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영웅으로 굉장히 훌륭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외교정책이나 안보정책에 있어서의 문제는 싹 가려졌음. 미중전략경쟁과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미국과 서방 간의 갈등 속에서 차기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은 과연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것이 사실 복합적인 과제임. 단순히 외교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안보, 경제안보, 군사안보가 한번에 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합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단순하게 중러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중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중관계, 중러관계, 중국과 유럽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음. 그러므로 이러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크로스 체킹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략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마지막으로 전쟁이 나거나 전쟁이 안 날 수 있는 외교 안보 경제 등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이번 사태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봄. 우크라이나가 불쌍하지만 불쌍하게 되지 않도록 국가운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임.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음. /끝/